

보도시점

2025. 6. 22.(월) 16:00

배포

2026. 6. 22.(월) 09:00

농식품부 장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누적 수료생 1,000명 달성 축하

- 스마트농업 이끌 청년인재 1,035명 배출, 미래 농업 성장동력 확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22일(월) 충남 천안 소노벨에서 열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통합 수료식’에 참석하여, 누적수료생 1,000명 달성을 축하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 농업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스마트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보육기관으로, 전북 김제·전남 고흥·경북 상주·경남 밀양 전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사업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12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번 7기 수료를 통해 누적수료생이 1,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행사는 ‘1,000개의 빛, 스마트농업을 밝히다!’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수료생과 교육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워크숍과 글로벌 스마트팜 전문가 특강 등 청년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행사에 앞서 송미령 장관은 보육센터별 우수성과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성과를 살펴보고, 교육생 및 수료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7기 수료생들에게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새로운 이정표인 ‘누적 수료생 1,000명 달성’을 기념하는 축하 퍼포먼스에 참여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인재들을 응원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스마트팜 보육센터 누적 수료생 1,000명 달성은 청년인재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이 만들어 낸 의미있는 성과”라며, “1,000명의 수료생은 대한민국 농업이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2411)
		담당자	사무관	명바른	(044-201-2425)